

유아의 대처반응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 윤 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문 혁 준(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유아의 대처반응과 정서지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 286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대처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Eisenberg, Fabes, Bernawing, Karbon, Poulin, Hanish(1993)가 제작한 것을 김희정(1994)이 변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병래(1997)가 개발한 유아용 정서지능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형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에 의해 개발된 Social Competence 평가 척도를 김성민(2009)이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에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대인관계형성기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즉 비취업모를 둔 유아의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행동 대처반응이 낮으면서 회피반응이 높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유아와 오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비취업모들이 유아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사고를 하며 그 상황을 일단 후퇴함으로써 대인관계형성능력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유아의 대인관계형성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대인관계기술이 능숙한 부모, 교사 등 성인과의 질적인 상호작용과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